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 가톨릭마산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청소년 주일)



##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루카 24,48)

루카 복음사가는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루카는 복음서의 시작에서부터 구원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2,11; 3,22; 4,21). 실제로 루카 복음서가 쓰여지던 시기에 많은 신자들은 박해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그 박해들을 견디어 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종말의 전조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멀리 있을 최종적 구원만을 기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을 체험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번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통하여 일어난 구원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내세우십니다. 영광스럽게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그전에 제자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먼저 당신의 부활과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할 것,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무를 것.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자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사도 2,1-13).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은 구원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삶이 풍족하고 여유로워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용서와 위로가 늘 새롭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에, 감추어질 수 없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증인으로 내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인 오늘은 홍보 주일이자 청소년 주일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신자들이, 특히 청소년과 청년이 많이 줄었음을 체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재미보다 더 재밌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교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항상 신앙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큰 기쁨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림 라우렌시오 신부 | 교구 청소년국장

### 주일 진례

|         |                                            |
|---------|--------------------------------------------|
| 제 1 독 서 | 사도 1,1-11                                  |
| 화 답 송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 제 2 독 서 | 에페 1,17-23 또는 히브 9,24-28; 10,19-23         |
| 복 음     | 루카 24,46-53                                |



# 마음의 귀로 경청하기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해 ‘와서 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데 이어, 올해는 소통과 대화에 필요한 ‘경청’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말씀이 되풀이되고, 신약에서 바오로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응답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해야 하라”고 말씀하시며,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에게 듣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이에게 귀 기울이지 않아 내적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청은 귀를 통해 겉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경청하여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청은 대화와 소통에서 꼭 필요합니다. 좋은 소통은 사람을 직접 만나 공정하고 당당하며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경청입니다. 그러나 엿듣기와 같은 나쁜 경청도 있습니다. 오늘날 소셜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엿듣고 엿탐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이를 이용하려는 유혹이 더욱 생겨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서로 자기 말만 하고 경청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청이 어려운 까닭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상처 입은 이 시기에 사회의 소리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신이 쌓여 만들어진 ‘가짜 정보의 유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사목 활동에서도 말하기에 앞서 ‘듣는 귀의 사도직’은 중요합니다. 형제자매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은 애덕의 행위입니다. 합창단은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각각의 목소리가 함께 어울려 노래합니다. 우리도 저마다 지닌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다른 이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회의 친교에 참여합니다.

이제 시노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노드가 서로 경청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 교구장 주교와 함께(Bishop's Appeal)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와 난민 돕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우크라이나와 함께 아파합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 나 거기 서있다(박노해 시) -

- ▶기간: 5월 22일(주일)~6월 4일(토)
- ▶대상: 본당, 단체, 일반 등
- ▶방법:
  - 기도 - 5월 22일, 29일 주일미사 보편지향기도
  - 2차 헌금 - 5월 29일(주일)
  - 후원계좌 - 농협 301-0154-1813-41  
(재)마산교구천주교회
- 주관: 천주교마산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산교구 공소 순례

교구장 사목교서 '마음을 다하여'를 실천하고,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신앙생활을 채신하며 낙후된 공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기간: 6월 1일(수)~12월 17일(토)
- 대상: 교구 전 신자
- 방법:
  - 1) 교구 내 50개 공소 중 올해는 진주지구 26개 공소를 순례하며, 순례 완주자에게 교구장 축복장 수여
  - 2) 순례 책자에 있는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가능하면 미사나 공소예절에 참여
  - 3) 순례 책자(3천 원)는 평협 사무실, 마산교구 레지아를 통해 구매 가능
  - 4) 순례자는 방문 공소에서 확인 스탬프를 찍고, 완성된 순례 책자를 12월 31일까지 평협 사무실로 제출
  - 5) 한 공소당 기부금(2천 원)은 낙후된 공소 지원 계획
- 문의: 평협 사무실 055·249·7114  
교구 레지아 055·249·7115  
평협 복음화분과 010·9349·5088



천주교마산교구

2022년도

### 마산교구 공소 순례



천주교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기에 하늘의 큰 영광을 채우신 성모님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성모님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신 분이시다. 그녀가 열어 준 이 가능성의 출발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 비움’(self-emptying)이다. 성모님의 가장 큰 영광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완전하게 자신을 비우셨기에 오히려 더 큰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토마스 머튼은 『새 명상의 씨』에서 “비움을 찾는 것은 성모님을 찾는 것이다. 비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성모님이 하느님으로 충만해 있듯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며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모셔오는 성모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모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사실 당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에 해당되었다. 그래서 성모님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는 고백은 돌 맞아 죽을 각오로 한 엄청난 말인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천사의 소식에 오롯이 믿음으로 응답한 그녀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어야 했으며, 태어난 아기가 자라고 성장하고 공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느님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숨은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무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했고, 그 아들을 먼저 무덤에 안장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렇듯이 성모님의 영광은 순종과 자기 비움, 기다림의 인내와 드러나지 않은 삶,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의 열매였다. 또한 성모님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늘로 불러 올림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역시 성모님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비우며,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느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삶의 고통 중에도 믿음과 자기 비움을 통해 성모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성모님의 하느님과의 신비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과의 신비로운 관계는 성모님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듯이 비워진 우리 자신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완성된다(갈라 2,20 참조).

성모님의 자기 비움과 순종의 삶은 우리에게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간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평생 동정’ ‘하느님의 어머니’ ‘원죄 없는 잉태’ ‘성모 승천’ 등의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신비이다. 성모님은 합리적 사고를 넘어 납득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일치를 선물 받았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가령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을 넘어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반면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다른 모든 것도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향도 생겨난다. 하느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를 넘어 더 큰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마태 20,1-16; 루카 15,11-32 참조). 성모님께서는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셨다.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만나게 된다. 이때 우리는 더 큰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섭리 앞에 성모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모님의 자기 비움의 영성을 통해 일치(union)와 친교(communion)의 삶을 배워야 할 것이다. 자신의 뜻을 온전히 비우신 성모님,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것을 모두 비우신 아들 예수님은 서로 분리되지 않으셨다. 하느님 아버지와의 일치를 통해 서로 참된 친교를 나누셨다. 이 친교는 영적인 친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친교를 포함한다. 성모님은 태중에서 예수님과 몸의 일치를 이루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마음의 일치를 이루었으며, 하늘로 오르심으로써 영적 일치를 이루셨다. 일치를 이루신 두 분의 사랑의 친교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성체를 통해 몸으로 예수님과 일치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며, 우리의 영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삼으셨기에 성모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 성모님과 교회의 지체인 우리 역시 분리될 수 없다. 가톨릭교회 역시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세상과 친교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 “젊은이가 무엇으로 제 길을 깨끗이 보존하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시편 119[118],9)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성(性)에 대한 왜곡은 더욱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상 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물과 같은 문제들은 인간의 성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성의 도구화, 상품화, 폭력화’ 등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90항).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이 성의 오남용 예방 차원에 방향을 맞추다 보니, 실제로 성교육은 여러분에게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피임 도구의 사용을 부추기곤 합니다. 그러나 피임은 성으로부터 생명을 거부함을 전제로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교육은 성의 오남용이나 피임 중심이 아닌, 혼인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은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며, 또한 그가 다른 이와 소통하고 인간 사랑을 느끼며 표현하고 실천하는 방식’(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4항)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은 남녀의 부부애를 위해 있는 것’(「가톨릭교회교리서」 2360항)이기에, 성적 결합은 ‘진리 안의 사랑’(요한 3,18)으로 평생 헌신하겠다는 혼인서약을 통해서만 허용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어야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자신의 성을 자기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식의 세속적인 행복 추구의 권리로서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사랑과 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야기된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젠더에 대한 개념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남녀 관계의 상호성과 보완성 그리고 성의 출산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성적 성향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일 창조 때에 남성과 여성의 이원성이 미리 안배되지 않았다면, 가정도 더 이상 창조로 예정된 실재가 아닐 것이요, 마찬가지로 그 자녀도 자신의 보금자리와 존엄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베네딕토 16세, 교황청에서 한 연설, 2012.12.21.) 그렇다면 우리 또한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현세적인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깨끗이 보존하도록 성모님의 특별한 전구를 청하며,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29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 교구/본당

### 사제평의회

일시: 5월 31일(화) 10:30  
장소: 교구청

### 신앙대학

일시: 6월 4일(토)~5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 교구 교육분과장 연수(성경관련자)

일시: 6월 4일(토) 10:30  
장소: 교구청  
대상: 본당 내 성경사목에 관련된 분과장 및 위원

### 교구 성경 특강

일시 및 장소: 6월 13일(월) 칠암동성당  
6월 14일(화) 명서동성당  
10:00~13:10  
주제: “예언자들: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동정 하시는 얼굴”-예언서  
강사: 조우현 신부(광주가톨릭대교수)  
참가비: 5천 원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5~6

## 위원회/기관/단체

### 제10회 한국가톨릭농아인의날

일시: 6월 5일(주일) 10:30~18:00  
장소: 전주치명자산 평화의 전당  
▶ 농아인의 날 참석으로 6월에는

수어미사가 없습니다.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6월 기도모임

일시: 6월 6일(월) 14:00-성체조배  
14:40-미사(주례: 정운호 신부)  
15:20-회의  
장소: 옥봉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교구봉사자  
문의: 회장 010·3903·8234

### 소성리 평화미사

일시: 6월 6일(월) 14:00  
장소: 소성리마을회관 천주교상황실  
(경북 성주 소성리)  
주최: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문의: 교구 정평위 055·261·8201

###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 외국인주민 통역 서비스

교구 내 외국인주민의 코로나19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외에도 본당 내 외국인주민들과 기업체 외국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창원이주민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가능언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인도어, 터키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테툼어)  
문의: 교구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 기 타

### 젊음의 집(평생교육원) 안내 및 행정 도우미 모집

일시: 화~토 13:00~17:00(4시간)  
대상: 30~50세 이전  
경력: 상관 없음  
문의: 010·7661·3832

### 국내 청년 5·18순례 캠프 참가 모집

내용: 천주교광주대교구 기관 광주인권평화재단에서 전국 교구의 청년 신자들 대상으로 ‘국내 청년 5·18순례 캠프-님을 알고, 배우고, 따르는 여정’을 기획하였습니다.

| 수도회 성소자 모임 | 일 시             | 장 소         | 문 의                                 | 비 고                 |
|------------|-----------------|-------------|-------------------------------------|---------------------|
| 한국외방선교회    | -               | -           |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6월 5일(주일) 10:00 | 서울 본부(동소문로) | korvocation@columban.or.kr          | 대상: (만)19세~35세      |
| 살레시오회      | 수시(문의바람)        | 창원 젊음의 집    | 심재현 치릴로 신부 010·2042·8353            |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

|                                                                                                                                            |                                                                                                                                                                                                                                            |                                                                                                                                                                                                                                                                                                                                                                                     |                                                                                                                                                                                                                                                                                                                                                                                                                                       |
|--------------------------------------------------------------------------------------------------------------------------------------------|--------------------------------------------------------------------------------------------------------------------------------------------------------------------------------------------------------------------------------------------|-------------------------------------------------------------------------------------------------------------------------------------------------------------------------------------------------------------------------------------------------------------------------------------------------------------------------------------------------------------------------------------|---------------------------------------------------------------------------------------------------------------------------------------------------------------------------------------------------------------------------------------------------------------------------------------------------------------------------------------------------------------------------------------------------------------------------------------|
| <p><b>우리농</b><br/>생명공동체</p> <p><b>가톨릭 우리농 직매장</b></p> <p>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br/>전문점</p> <p>창원시 중동중앙로 47<br/>어반브리스 상가 1층</p> <p>055·266·7010</p> | <p><b>천차만차</b><br/>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br/>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br/>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p> <p>055)288-1137<br/>010-6299-1137</p> <p></p> | <p><b>트라피스트 수녀원</b><br/>100% 유기농 잼</p> <p></p> <p>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br/>(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br/>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br/>선물용 환영합니다.</p> <p>• 수녀원 직영 쇼핑몰<br/><a href="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a><br/>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p> | <p>세계최초 음향표준 이어폰<br/>당신이 꿈꿔왔던 감동의소리를 만나보세요</p> <p><b>SONICAST direm</b><br/>네이버 스마트 스토어<br/><a href="https://smartstore.naver.com/sonicast">https://smartstore.naver.com/sonicast</a><br/>(네이버에서 '소니캐스트'로 검색 가능)<br/>대표 이사: 이의철 대건 안드레아/ 055-288-3768</p> <p><b>마산 예경요양병원</b><br/>(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br/><b>예경병원</b><br/>(알코올 및 정신 질환)</p> <p>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br/>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br/>*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p> |
|--------------------------------------------------------------------------------------------------------------------------------------------|--------------------------------------------------------------------------------------------------------------------------------------------------------------------------------------------------------------------------------------------|-------------------------------------------------------------------------------------------------------------------------------------------------------------------------------------------------------------------------------------------------------------------------------------------------------------------------------------------------------------------------------------|---------------------------------------------------------------------------------------------------------------------------------------------------------------------------------------------------------------------------------------------------------------------------------------------------------------------------------------------------------------------------------------------------------------------------------------|

청년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지(www.ghpf.or.kr) 참조 바랍니다.

문의: 062·234·2737

#### 성령강림절 대피정

일시: 6월 4일(토) 10:00~17:00

장소: 월막피정의 집(대구 성령봉사회 회관)

강사: 이영숙 베드로 수녀,

윤원진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

미사: 장신호 요한 보스코 주교

(대구대교구 총대리)

문의: 010·9045·0191

####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 50% 할인(전화필수)

#### 재속 프란치스코회 생태영성 특강안내

일시: 매월 둘째주 토요일

장소: 칠암동성당 대성전/ 대상: 신자 및 비신자

주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영성

강사: 김종화 알로이시오 신부(작은 형제회)

주관: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문의: 010·5230·1420, 010·5006·6254

####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피정 또는 단체 피정(5명 이내)

교육: 교리 교육

장소: 본원 피정의 집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 ‘가톨릭 신자 앱’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본당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차세대 본당 양업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가칭 ‘가톨릭 신자 앱’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사무실을 방문하셔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일부 업무도 앱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 ‘가톨릭 신자 앱’에 교우 여러분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모기간: 5월 15일(주일)~6월 5일(주일)까지

▶참여 및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접속하여 참조 바랍니다.



#### 레지오 마리아 창설 100주년 기념 감사미사



Regia

마산

치명자의모후  
레지아

일시: 6월 6일(월) 14:00

장소: 사파동성당

집전: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교구 사제단

#### 故 이승석 프란치스코 신부 12주기 추모미사

일시: 6월 8일(수)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남경철 신부 010·9514·0825

#### 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

후원계좌: NH농협은행 301-0293-9000-01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055·249·7121

## 산호동본당 바다의 별 Pr. 2,000차 기념 주회



산호동본당(주임: 김용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바다의 별 Pr.(단장: 정영임 글라라)은 지난 4월 28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바다의 별 pr. 단원들은 40년 동안 매주 목요일, 함께 주회를 하며 이웃에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꾸리아 간부와 브레시디움 단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기뻐하였다. 본당 주임 신부는 “2,000차 주회를 맞이한 바다의 별 Pr. 단원들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며 이제는 3,000차를 향하여 열심히 활동합시다.”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다.

소식



# 썸바귀꽃

도경희 스텔라 시인/ 가톨릭문인회

오월, 축제의 달이다. 어린이와 스승과 아버지의.

복지원에 봉사활동을 갔다. 원장님께서 복지원에 대한 소개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다. 처음에는 행려 환자, 알코올 중독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분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지금은 청소년만 생활하고 있다. 그들 모두 학교에 갔다고 한다.

청소구역을 정하기도 전에 일행 중 제일 나이 많은 선배가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며 장갑을 끼고 화장실로 먼저 들어간다. 웃으시면서.

“제가 할게요!” 이미 늦었다.

나는 먼저 유리창을 닦았다. 창은 기도의 장소다. 하늘을 보고 마음을 여는 곳이지 싶다. 밤이면 그를 찾아올 고운 별이 있을지..., 소년이 누리지 못한 부모 형제의 사랑이 펄럭이며 날개를 펴고 다가와 소년의 심장을 파닥파닥 뛰게 할지도.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쓱쓱 쓱쓱 창을 닦았다. 마루와 방을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옷장을 정리했다.

서랍을 여니 시린 그리움이 차곡차곡 접혀있었다. 안쪽에 얇은 속옷으로 반쯤 덮인 상자 안에 햄스터 한 마리가 있었다. 자그마한 종이상자 안에서 저도 놀랐는지 낯선 이를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고 있다. 머루처럼 새까만 영검한 눈이. “이상한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나오세요.” 하던 원장님의 목소리가 귀에 걸린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어진 까만 눈빛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소년이 되어 목을 한껏 움츠리고 있는 햄스터를 만져 본다. 따뜻하다. 정겹다. 간지럼 반 애무 반의 촉감에 깊이 취해서 소년은 속울음을 얼마나 쟁였을까. 하루 밥 세 끼 옷 한 벌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될까. 그의 길고 긴 외로움이 내 손 안에 잡혀 뭉클거린다.

겉옷과 속옷 상의와 하의 양말과 수건을 가지런히 깎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수시로 서랍을 뒤집고 자신의 남루를 만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아직 어린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혹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 가슴이 빠근해진다. 나는 소년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 다만, 오늘 학교에서 돌아와 서랍을 열고 햄스터를 어루만지며 한순간이라도 쓸쓸함을 나누는 소년의 모습만 생각하기로 했다.

다시 오월이다. 비록 눈 뜨면 가난하고 외롭지만 그  
옷장에 그려진 꿈들이 수천 마리 나비가 되어  
일제히 하늘 가득 날아오르곤 할까.

내일은 오늘과 다르길 목주알  
헤는 목이 긴 하얀 썸바귀꽃  
이슬 영롱한 아베 마리아~

